

한 관리, 다양한 주민참여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구성요소 대분류로 도시의 문화·환경보전, 환경과 인간의 조화, 도시환경 및 문화의 질, 역할 분담 및 주민 참여로 제시하였다.

중분류 평가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생태도시지표와 문화지표를 병렬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생태·문화·인간 환경 3요소를 융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생태도시와 문화도시지표를 결합하였다. FGI 적합성 검증을 통해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 그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해 분야별, 지표별로 경향성을 비교 및 검토하여 중분류 12개 지표를 선정 및 수정하고, 세부지표 71개에서 생태문화도시에 적용 가능한 41개의 융복합 지표를 도출하였다. 41개의 지표는 4분야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그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로써 상대적으로 분야 간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표라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융복합적 접근 방법을 고려한 지표를 선정하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된 생태문화도시 대분류, 중분류 지표를 생태문화도시의 정의와 인간의 삶의 질, 쾌적성 측면, 경관학적 측면, 도시의 현상학적 측면에서 개념을 적용하였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삶을 느끼는 요인에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는 만족감과 거주성으로 이는 기억, 전통, 의미, 상징, 관습 등이 적재된 장소성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현상학적 장소론을 적용하여 생태문화도시의 구성요소에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지표를 그 정의와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현재까지의 생태문화도시 분석의 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